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바다사자가 마늘요리해

EBS 독서 연계 대비 원조 맛집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좋은 연계체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

2024

EBS 독서 연계 대비

수완편

2024

머리말

2024학년도 이배이 시리즈입니다. 5년째 출판을 하며 항상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비문학에서 EBS 연계의 효용이 어느 정도인가”

매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고찰해 왔고, 수능의 경향성과 연계율에 맞춰 매년 교재의 형태를 발전시키며 진화했습니다. 작품 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학과는 다르게, 비문학은 소재가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EBS 연계의 효용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문학의 경우, 매우 다양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소재를 공부하기에는 한정된 수험생활의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올 것 같은 지문만 공부하기에는 적종의 문제가 있으며, 모든 지문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배이’ 시리즈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여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EBS 비문학의 연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재로, 효율적인 수능 공부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재 사용법

상술한 바와 같이 ‘이배이’시리즈는 효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율이라는 것은 ‘나올 지문만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능에 무엇이 나올지 정확하게 적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문학의 특성상 간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어 공부할 지문’에 중요도를 체크하였습니다. ‘나올 만한 것’이 아니라, ‘나온다면 귀찮아질 소재’입니다. 지문별로 연계될 수 있는 소재까지 고려하여 모든 지문과 모든 소재를 준비하는 것은 연계 적중에 의한 효용보다 그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별로 힘을 주어 공부의 정도에 차등을 두어야 하며, 개개인이 ‘약한 분야’를 익히기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한 파트의 지문은 달달 외우셔도 좋고 3번 넘게 읽으셔도 됩니다. 이에 반해 강한 파트의 지문은 아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도’라는 것이 비문학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지식의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커리큘럼

자료 구분	설명
온라인 자료	오르비/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전자책상으로 판매되는 자료
배포 자료	6월, 9월 평가원의 시행에 따른 경향 해석을 반영한 자료로, 구매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자료 구글 forms 인증 후 이메일로 지급 (QR코드/링크) https://forms.gle/dFE9tf1wJvrgygD59
오프라인 자료	오프라인 현강생 자료, 온라인/배포 자료 모두 포함



*출판 일정 등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명	종류	컨셉
이배이	수특(상/하), 수완 총 3종	EBS 배경지식 학습서, 선별된 지식 학습
이배이 에센셜	1종	EBS 배경지식 중 핵심 지식 선별 학습서
지문별 중요도	수특/수완 총 2종	지문/토픽별 중요도 자료
짜라시 자료	미정	수능 직전 출제위원 짜라시에 대응한 자료
최종 예상소재	수능 총 1종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소재(3~10개) 선별
오프) 예상소재	수특/수완 총 2종	지문 토픽과 연계될 수 있는 소재 모음
오프) 지식사전	수특/수완 총 2종	지문 토픽과 지식 모음

	온라인 자료	배포 자료	오프라인 자료
3월	이배이 수특편 상/하		수능특강 예상 소재
4월			
5월		지문별 중요도	EBS 지식사전 (수특)
6월			수능완성 예상 소재
7월	이배이 수완편		
8월		지문별 중요도	EBS 지식사전 (수완)
9월			
10월	이배이 에센셜	짜라시 대응 자료	
11월		최종 예상 소재	

목차 / 상편 / 페이지는 EBS 본교재 기준

번호	페이지	제목
2024 수특개념1	9	실학의 등장으로 인한 조선 시대 자연관의 변화
2024 수특개념2가	11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기능주의의 관점과 그 의의
2024 수특개념2나	11	설의 중국어 방 논증과 그 의의
2024 수특개념3	14	깊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고전 읽기의 필요성
2024 수특개념4	17	화학 전지의 양극과 음극을 결정하는 이온화 경향
2024 수특개념5	21	독과점을 판단하는 시장 집중도 지표
2024 수특개념6	25	스피노자의 사상
2024 수특개념7	28	대상에 따라 달랐던 왕실의 잔치, 진연
2024 수특개념8	31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한 데리다의 입장
2024 수특개념9	36	빈곤을 판단하는 방법과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2024 수특개념10	39	세계 시민주의의 내용과 그 한계
2024 수특개념11	42	소리 세기, 소리 세기 수준, 시끄러운 정도의 개념상의 차이
2024 수특개념12	46	능동적인 독서를 위한 방법과 태도
2024 수특개념13	48	동소체의 개념과 특성 및 사례
2024 수특인예1	54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고찰
2024 수특인예2	58	미술에 대한 그린버그의 관점과 그 영향
2024 수특인예3	63	인간의 욕망에 대해 분석한 라캉의 이론
2024 수특인예4	67	이미지와 지각에 대한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입장
2024 수특인예5	71	캠벨의 원질 신화에 나타난 서사 구조와 그 의미
2024 수특인예6	76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서양 사상가들의 논의
2024 수특인예7	81	르네상스 음악의 특징
2024 수특인예8	85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과 진리의 상대성
2024 수특인예9	90	퍼스가 제시한 가추법의 추론 방식과 특징
2024 수특인예10	94	사회 계약론의 개념과 학자별 견해
2024 수특인예11	98	인간의 행위에 대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모델
2024 수특인예12	102	요제프 보이스의 예술 개념과 의의
2024 수특인예13	106	회화와 음악에서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24 수특사문1	111	위협 소구와 관련된 이론 및 유의점
2024 수특사문2	116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과 의미
2024 수특사문3	120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가설과 경제 정책 방향
2024 수특사문4	124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 대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
2024 수특사문5	128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신박물관학자들의 입장
2024 수특사문6	132	국제 투자 대조표와 대외 지급 능력에 대한 이해
2024 수특사문7	137	선거 방송 보도의 종류와 그 특징
2024 수특사문8	142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
2024 수특사문9	147	채권의 발행과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
2024 수특사문10	152	신속하고 경제적인 소송을 위한 조선 시대 소송 제도
2024 수특사문11	157	헌법 재판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다양한 견해
2024 수특사문12	161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한 공공 선택론
2024 수특사문13	165	문턱값, 재화의 도달 거리와 상업 입지

목차 / 하편 / 페이지는 EBS 본교재 기준

번호	페이지	제목
2024 수특과기1	172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개념과 특징
2024 수특과기2	176	핵 재처리 기술의 종류와 특징
2024 수특과기3	179	창의성과 관련된 뇌의 작용
2024 수특과기4	182	화학 반응과 이에 관여하여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촉매
2024 수특과기5	186	OSI 참조 모델의 계층과 기능
2024 수특과기6	191	케플러가 지구의 타원 궤도 운동을 밝혀낸 과정과 그 발견의 의의
2024 수특과기7	195	다양한 저울의 측정 원리
2024 수특과기8	199	데이터 전처리에서 이상치와 결측치의 처리
2024 수특과기9	203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진화 음악을 만드는 과정
2024 수특과기10	207	압전 효과와 이를 이용한 진동 센서
2024 수특과기11	211	플루이디티의 개념과 플루이디티와 기체상의 압력과의 관계
2024 수특과기12	214	전계 방출 현상의 원리와 발생 조건
2024 수특과기13	218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과정
2024 수특통합1가	223	동물 중에서 발견되는 종 특이적 행동들에 대한 진화론적 규명
2024 수특통합1나	223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에 대한 진화적 관점에 따른 견해 및 사회적 학습에 의한 감정 유발 단서와 전시 행동
2024 수특통합2가	229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시간 구분 방법
2024 수특통합2나	229	조선의 시간 통제
2024 수특통합3	233	그림자 금융의 운영 원리
2024 수특통합4가	238	음악의 의미 표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해튼의 음악 해석 이론
2024 수특통합4나	238	음악 기호학에 대한 부정적 입장
2024 수특통합5가	242	한비자의 통치론
2024 수특통합5나	242	마키아벨리의 통치론
2024 수특통합6가	247	물질의 입자성과 파동성의 이중성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성 원리의 개념
2024 수특통합6나	247	파장을 통한 측정에서 불확정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2024 수특통합7가	251	보편자와 특수자에 대한 실재론과 유명론의 관점
2024 수특통합7나	251	공손룡의 견백석이 논증을 통한 그의 현실 인식
2024 수특통합8가	255	강수의 원리
2024 수특통합8나	255	인공 강우의 원리와 활용
2024 수특통합9가	259	원격 작용설에서 맥스웰 방정식까지 19세기 전자기학 연구의 전개 과정
2024 수특통합9나	259	헤르츠의 전자기파 발견부터 원거리 전파 통신 실현까지의 과정
2024 수특통합10가	265	증강 현실의 특징과 구조
2024 수특통합10나	265	현존감의 개념과 유형
2024 수특통합11가	270	조세 제도를 고안할 때 고려되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개념
2024 수특통합11나	270	조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의 특성에 따른 조세 부담의 양상
2024 수특통합12가	276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과학적 지식의 상대성
2024 수특통합12나	276	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로티와 퍼트넘의 논쟁
2024 수특모고1-1	282	효과적인 독서 전략과 의미 구성 능력의 향상 방안
2024 수특모고1-2	284	삼각 측량 논증의 기본 전제와 이를 통한 사고 형성
2024 수특모고1-3	287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물권 행위에 대한 두 관점
2024 수특모고1-4	290	지구상의 유기체에 나타나는 일주기 리듬의 작동 원리
2024 수특모고2-1	294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별해 전략적으로 독서하는 태도
2024 수특모고2-2	297	태풍의 바람 방향과 관련 있는 과학적 원리
2024 수특모고2-3	301	주체성을 중시하며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왕수인의 양명학
2024 수특모고2-4	306	환율 결정 모형에 대한 이해와 응용

수완편 업데이트 사항 - 정부 발표 관련

6월 평가원 이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출제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쉽지 않게 결론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수완편에서는 수특편과 다르게 **Comment**를 추가하여 주관적인 생각을 담았습니다. 중요도에 대한 부분은 현 시점에서 비문학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전자책의 특성상 빠른 속도로 9월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확인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를 추가자료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수완편이 출판되는 현 시점, 전자책에는 (과하지 않은 내용인) 일부만 수록된 '전지문 예상 소재'에 대한 부분은 모두 작업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수완편 에센셜과, 전체 에센셜 파일로 추후 업로드/판매 예정입니다. 6월 평가원 및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EBS의 중요도는 매우 증가하였고, 이에 EBS 이외의 배경지식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며, 전면적인 재검토 및 9월 평가원을 반영한 버전으로 재배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간단하게 멘탈과 학습의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1) 아무런 문제 없다, 2) 우선은 EBS 본문을 먼저로** 요약해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정부의 방침은 3월에 지시되었고, 6월 평가원에는 이를 반영하여 출제되었습니다. 결국 EBS 연계 체감은 증가하였고, 난이도는 감소하였습니다. 빠른 템포의 속도감 있는 풀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험생들은 이를 모르는 상태로 준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 '모두가 모르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장 안에서 저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 중요할 뿐,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한 배경지식은 오히려 독이 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본문, 특히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토픽, 그리고 8월 이후 업로드될 **배경지식사전** 등은 무조건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평가원에서도 보여드렸듯, 세 지문 중 두 지문 이상은 '배경지식사전'에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본문, 특히 시간이 없으면 토픽 위주로라도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수완편 / 페이지는 EBS 본교재 기준

번호	페이지	제목
2024 수완유형1	8	QAR 독서 전략
2024 수완유형2가	14	꿈에 대한 프로이트와 융의 분석
2024 수완유형2나	14	융의 원형 이론
2024 수완유형3	25	이익률과 레버리지 효과
2024 수완유형4	33	허수와 호킹의 우주론
2024 수완1회1가	134	도덕성 생명 향상의 의미와 필요성
2024 수완1회1나	134	과학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의 한계
2024 수완1회2	136	미디어의 영향력과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사회적 확산 과정
2024 수완1회3	139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기술과 주요 모델의 특징
2024 수완2회1	160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
2024 수완2회2	162	조선의 화폐 개혁
2024 수완2회3가	164	식물의 광합성 과정과 원리
2024 수완2회3나	164	인공 광합성 기술인 광전기 화학전지의 구조와 원리
2024 수완3회1	184	독서 과정의 세 가지 모형의 특징과 한계
2024 수완3회2가	186	외부 효과의 종류와 해결 방법
2024 수완3회2나	186	공공재의 특징과 시장실패와의 연관성
2024 수완3회3	189	행동주의 심리학의 강화와 벌의 종류
2024 수완3회4	191	바이러스의 침투 및 증식과 그로 인한 질병
2024 수완4회1가	212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의 요인과 실학자들의 개혁안 제시
2024 수완4회1나	212	유형원, 이익, 유수원의 신분제 개혁 방안
2024 수완4회2	215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가능성과 유의점
2024 수완4회3	218	CPU 스케줄링의 의미와 작동 방식
2024 수완5회1	240	고대 그리스의 신전과 로마의 판테온과 콜로세움의 특징
2024 수완5회2	242	무효, 취소, 철회로 인한 처분의 효력 변화
2024 수완5회3가	244	액체 로켓 엔진과 고체 로켓 엔진의 특징
2024 수완5회3나	244	중력 추진을 통한 우주선 발사체 이동 방법

2024	QAR 독서 전략
유형1	
수완 8	

이 글은 라파엘이 개발한 독서 전략 중 하나인 QAR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QAR은 독자들이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독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QAR에서는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글에 해답이 그대로 있는' 확정 질문과 앞뒤의 정보를 연결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연결 질문'이 있습니다.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은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QAR 독서 전략은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거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추론과 판단의 사고 과정을 키우는 데 적합한 전략입니다.

연계 기출	
평가원	-
LEET	-

지문 요약
<p>독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과 비판, 종합적 판단 등의 사고 과정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활동이다. 독서 전략 중에는 마인드맵, 캐릭터 차트, 도식 등을 사용하여 복잡한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라파엘이 개발한 QAR (Question-Answer Relationships)을 활용하여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글의 정보를 이해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QAR에서는 확정 질문과 연결 질문으로 답을 찾거나, 저자와의 관계나 개인적인 생각을 고려한 질문을 활용한다. 이런 독서 전략은 효율적인 독서를 도와주며 추론과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p>

독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과 비판, 종합적 판단 등의 사고 과정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능숙한 독자들은 독서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방법, 즉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복잡한 글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사용했다면,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것은 독서 전략이 된다. 핵심 내용 파악을 위해서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캐릭터 차트, 도식으로 정리하기 등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같더라도 전략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라파엘이 개발한 QAR(Question-Answer Relationships)는 독자들이 질문을 만들고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독서 전략이다. QAR에서 질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이다. 이것은 글에 해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확정 질문'과 앞뒤의 정보를 연결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연결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는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이다. 이것은 다시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허생전의 예를 든다면 확정 질문은 '허생이 매점 매석을 한 물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처럼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면 '과일과 말총'이라는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다. 연결 질문은 '허생과 이완의 복벌에 대한 생각 차이는 무엇인가?'와 같이 주로 주장과 근거 파악, 차이점과 공통점 파악 등 답이 텍스트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텍스트의 여러 부분을 결합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 안의 근거를 함께 활용해야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허생이 손가락을 잡을 때는 오른손으로만 잡게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은 글 안에 답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좁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사람과 손가락을 드는 손이 달라 부딪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허생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답을 할 수 있다.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이다. '허생은 사라진 뒤 어떻게 살았을까?', '자신이 생각할 때 허생은 좋은 사람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답으로 말할 수 있

다.

이처럼 QAR 독서 전략은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하기를 통해 글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을 통해 추론과 판단의 능력을 키우는 데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

KWL은 독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독자의 배경 지식과 독서를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 사이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독서 전략이다. KWL에서는 독자가 '아는 것' (Know), '알고 싶은 것' (Want to learn), '배운 것' (Learned)을 표에 작성한다.

먼저 글의 제목이나 목차를 통해 화제를 파악한 후, 화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을 K에 자유롭게 적는다. W에는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든다. W의 내용을 작성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가면서 K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W의 내용이 나오는지 유의한다. 글을 다 읽고 난 후 L에는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기록한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서 의심이 생기는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L에 추가로 기록한다.

2024	꿈에 대한 프로이트와 융의 분석
유형2가 수완 14p	
<p>이 글은 정신 분석학에서 무의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꿈에 대해 프로이트와 융의 분석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 연상법을 창안하였는데, 이는 환자가 꿈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여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유 연상법은 오류가 생기기 쉽고 꿈의 실체에서 멀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프로이트는 꿈의 이미지 자체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법을 정립하였습니다.</p>	

연계 기출	
평가원	2002.11, 2005.예비
LEET	-

지문 요약	
<p>상징은 명백한 의미 이상을 내포하며, 무의식과 관련이 깊다. 프로이트는 꿈을 통해 무의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유연상법을 사용하여 꿈을 분석하고, 환자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통해 무의식적 배경을 알아내었다. 하지만 융은 자유연상법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고, 꿈의 이미지들이 무의식의 내용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융은 자신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 꿈의 실체와 관련없는 관념적인 상상을 배제하고, 꿈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p>	

상징은 말이나 형상이 명백한 의미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의식과 관련이 깊다. 어떤 환자는 음식물을 삼키려 할 때 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음식물로 상징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무의식의 발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에서의 문제는 신체적 증상, 즉 신경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꿈의 상징이 신경증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꿈은 환자의 무의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의 꿈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연상법'을 창안하였다. 이 방법은 의사가 꿈을 꾸 사람에게 그 꿈의 이미지나 이미지를 통해 환기되는 생각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와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환자가 말한 것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통해 병의 무의식적 배경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자유연상을 통해 환자들이 감추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에 이를 수 있었다. 임상 경험을 통해 프로이트는 억압되어 무의식에 잠재하던 욕구가 꿈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고, 이 이론은 널리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카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을 분석하는데 자유연상법은 오류가 생기기 쉬운 방법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동료는 러시아 여행 중 처음 보는 키릴 문자를 보고 공상에 빠졌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콤플렉스라 불리는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였다. 융은 이를 통해 자유연상의 출발점이 꿈일 필요는 없으며 키릴 문자와 같은 상징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꿈은 의식이 사라질 때 나타나기 때문에 꿈의 상징적 이미지 자체가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연상에 의해 일련의 생각을 이리저리 따라가다 보면 꿈의 실체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융은 자신의 견해가 확고해짐에 따라 프로이트의 방법과 결별하고 새로운 방법을 정립해 나갔다. 그는 꿈에서 본 이미지들을 자세히 기술하며 무의식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와는 달리 꿈은 체계나 논리성이 없었다. 융은 꿈의 실체와는 관련이 없는 관념이나 연상, 억지로 논리성을 맞추려는 의식적인 노력들을

을 모두 배제하고 꿈의 이미지들이 상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융은 꿈의 이미지들이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의 표현이라고 보았으며, 프로이트와 달리 다양한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보기〉

융은 프로이트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꿈과 신경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다. 융은 퇴락한 집에 고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해골과 사체로 가득 찬 이미지들을 말했다. 프로이트는 자유 연상법을 사용하면서 해골과 사체들에 대해 요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융은 이 이미지들이 화석인류와 해부학에 관심이 많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퇴락한 집과 고가구의 이미지는 종교인과의 사가 많은 집안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 등의 성장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융은 프로이트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내밀한 부분까지 보여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유 연상을 말할 때 일부 거짓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본문 속 배경지식

2024 인예51	꿈의 해석	☆☆
<p>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의 꿈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연상법'을 창안하였다. 이 방법은 의사가 꿈을 꾸 사람에게 그 꿈의 이미지나 이미지를 통해 환기되는 생각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와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환자가 말한 것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통해 병의 무의식적 배경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자유연상을 통해 환자들이 감추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에 이를 수 있었다. 임상 경험을 통해 프로이트는 억압되어 무의식에 잠재하던 욕구가 꿈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고, 이 이론은 널리 인정을 받게 되었다.</p> <p>융은 꿈의 실제와는 관련이 없는 관념이나 연상, 억지로 논리성을 맞추려는 의식적인 노력들을 모두 배제하고 꿈의 이미지들이 상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융은 꿈의 이미지들이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의 표현이라고 보았으며, 프로이트와 달리 다양한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p>		
<p>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 꿈의 이미지나 이미지를 통해 환기되는 생각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 환자가 감추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에 이를 수 있었다.</p> <p>융의 반박 꿈의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음.</p>		

수완 p. 14

2024 인예52	융의 반박	☆
<p>카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을 분석하는데 자유연상법은 오류가 생기기 쉬운 방법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동료는 러시아 여행 중 처음 보는 키릴 문자를 보고 공상에 빠졌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콤플렉스라 불리는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였다. 융은 이를 통해 자유연상의 출발점이 꿈일 필요는 없으며 키릴 문자와 같은 상징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꿈은 의식이 사라질 때 나타나기 때문에 꿈의 상징적 이미지 자체가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연상에 의해 일련의 생각을 이리저리 따라가다 보면 꿈의 실체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p>		
<p>카를 융의 반박 개인적 경험으로 상징의 기원이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고 '자유연상기법'을 반박하였음.</p>		

수완 p. 14

기출 속 배경지식

꿈에 관하여

우리는 꿈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수면 중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꿈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과, 꿈의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은 항상 꿈꾸는 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간단히 '수면 상태의 나르시시즘(narcissism)'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정신의 작용 방향이 외부 세계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비로운 현상으로 여겨 왔던 꿈의 '진단'능력에 대해서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해졌다. 꿈 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크게 과장되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빨리, 더 분명하게 감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꿈의 과장성' 역시 외부 세계로 향하던 정신적 에너지가 자아로 되돌려지는데서 나오는 것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002. 수능

꿈과 콤플렉스

우리는 꿈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외면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를 '투사(投射.projection)'라고 하는데, 우리는 꿈속에서 평소에는 억누르고 있던 내적 욕구나 콤플렉스(강박 관념)를 민감하게 느끼고 투사를 통해 그것을 외적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2002. 수능

러셀의 꿈의 가설

내가 감각하는 사물들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이 책상이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혹시 이것들이 상상의 산물은 아닌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감각을 넘어서 물리적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다.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론을 통해서 보여 주었듯이, 인생이 하나의 긴 꿈에 불과하다는 '꿈의 가설'에서 어떤 논리적 모순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리적 가능성이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꿈의 가설을 굳이 진리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다.

2005. 예비

2024	응의 원형 이론
유형2나 수완 14p	

이 글은 유형이 집단 무의식의 일부로 가정한 '원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융은 원형이 무의식적 이해 방식으로 본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형이 유전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 융은 원형이 형성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원형 자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계 기술	
평가원	2002.11, 2005.예비
LEET	-

지문 요약	
<p>융은 꿈의 이미지와 고대 신화 연구를 통해 신화와 신경증 환자의 이미지들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환자의 꿈에서 나타난 환상이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융은 환자가 기술한 꿈에서 본 환상이 고대 이미지나 상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인적 무의식에 '본능'과 '원형'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이며, 본능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원형은 개인의 이해 방식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융은 원형이 유전적으로 전달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 융은 원형은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며, 이미지의 세부 내용은 환경과 역사적 변화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융은 원형과 이미지들이 최초의 무형 상태에서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성되는 틀이라고 보았으며, 이들은 신화의 형태로 전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p>	

융은 꿈의 이미지와 고대 신화 연구에 몰두하면서 신화와 신경증 환자가 떠올리는 이미지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한 환자는 태양의 한가운데서 둥근 관이 나오고, 그 관을 움직여 바람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 미트라교 경전에 나오는데, 환자는 미트라교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융은 환자가 기술하는 꿈에서 본 환상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미지나 상징의 집단적 저장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인적 무의식에 덧붙여 '본능과' '원형'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집단 무의식'을 가정했다.

본능이란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충동으로서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융은 인간에게는 이와 더불어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양식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원형이라고 하였다. 융에 따르면 둘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것이며, 본능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원형은 개인의 이해 방식을 결정한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이 결정되고, 행동하려는 충동도 상황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융은 이처럼 본능과 원형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원형은 본능처럼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원형이 유전된다는 것은 "획득형질이 유전된다"는 라마르크의 오류를 답습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융은 유전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이미지들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형은 순전히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고, 원형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들은 환경이나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 때문에 융은 후기 저작에서 '원형 자체'와 원형적 이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원형적 이미지들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들 사이에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원형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융은 원형 자체가 최초의 무형 상태에서부터 구체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틀이라고 보았다. 그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는 원시의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화의 형태로 남는다고 보았다.

본문 속 배경지식

2024 인예53	카를 융의 무의식	☆☆☆
<p>개인적 무의식에 덧붙여 '본능과' '원형'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집단 무의식'을 가정했다.</p> <p>본능이란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충동으로서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융은 인간에게는 이와 더불어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양식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원형이라고 하였다. 융에 따르면 둘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것이며, 본능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원형은 개인의 이해 방식을 결정한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이 결정되고, 행동하려는 충동도 상황 이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융은 이처럼 본능과 원형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원형은 본능처럼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았다.</p>		
<p>본능 + 원형 = 집단 무의식 본능: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충동 원형: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양식 원형은 아르키타입이라고도 불립니다.</p> <p>추가로 본문에 언급된 라마르크의 오류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교육과정 내에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p> <p>라마르크의 오류: 획득한 특성이 유전자 수준에서 후손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p>		

수완 p. 14

기출 속 배경지식 (중복)

<p>꿈에 관하여</p> <p>우리는 꿈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수면 중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꿈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과, 꿈의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은 항상 꿈꾸는 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간단히 '수면 상태의 나르시시즘(narcissism)'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정신의 작용 방향이 외부 세계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비로운 현상으로 여겨 왔던 꿈의 '집단' 능력에 대해서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해졌다. 꿈 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크게 과장되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빨리, 더 분명하게 감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꿈의 과장성' 역시 외부 세계로 향하던 정신적 에너지가 자아로 되돌려지는데서 나오는 것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p>
--

2002. 수능

<p>꿈과 콤플렉스</p> <p>우리는 꿈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외면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를 '투사(投射, projection)'라고 하는데, 우리는 꿈속에서 평소에는 억누르고 있던 내적 욕구나 콤플렉스(강박 관념)를 민감하게 느끼고 투사를 통해 그것을 외적인 형태로 구체화한다.</p>

2002. 수능

|

2024 유형3 수완 25p	이익률과 레버리지 효과
-----------------------	---------------------

이 글은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 척도인 이익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익률은 이익을 기준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업에서 매출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는 이익률에는 영업 이익률, 경상 이익률, 순 이익률이 있습니다. 순이익을 투입된 자산으로 나누면 총자산 순이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총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총자산 순이익률)/(1 - 타인 자본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 자산 순이익률이 일정하다면 타인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연계 기출	
평가원	2002.11, 2008.11
LEET	2023(19~21)

지문 요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이익률'은 기업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영업 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2.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투자 손익, 환차손익 등을 가감한 이익을 말합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흑자라 하더라도 경상이익은 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특별 손익을 더하고 세금을 빼서 얻는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순이익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각각 투입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한 이익률을 나타냅니다. 5.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원리를 말하며, 이는 자기자본의 비율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자 비용의 증가와 손실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는 기업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투자를 위한 판단을 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은 '이익률'이다. 이익률은 기업이 얻은 이익을 분자로 놓고 그것을 기준치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이익은 정의방법에 따라 다양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익률도 달라진다.

기업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익은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은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말한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일반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높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영업이익률을 많이 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크면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금융비용이나 투자손익, 외환거래에서의 환차손익 등과 같은 요소는 빠져있다. 영업이익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한 이익을 '경상이익'이라고 한다. 일례로 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혹자라 하더라도 경상이익은 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기업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우발적 원인에 의해 생기는 특별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경상이익에 특별손익을 더한 후 세금을 빼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인 '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 순이익률은 일정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기업의 활동을 자산을 투입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 파악하면, 이익은 투입된 자산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익을 어떻게 정의했든 이익을 투입된 총자산으로 나누면 총자산이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을 순이익으로 본다면 총자산 순이익률 = $\frac{\text{순이익}}{\text{총자산}}$ 이 되는데, 이 식에서 분모 분자에 매출액을 곱하여 변형해 보다면 총자산 순이익률 = $\frac{\text{순이익}}{\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frac{\text{순이익}}{\text{매출액}}$ 은 '순이익률'이고,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은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한다. 총자산회전율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이용하여 매출액을 얼마나 창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총자산 회전율이 높다면 기업은 보유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총자산순이익률은 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에 비례한다.

기업의 총자산은 자기자본과 타인에게서 빌려온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면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분자인 순이익은 총자산순이익률 공식에서 '총자산 * 총자산순이익률'로 나타낼 수 있다. 분모인 자기자본은 '총자산 * (1-타인자본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분모와 분자에서 총자산을 소거하면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frac{\text{총자산순이익률}}{(1-\text{타인자본비율})}$ 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 공식에서 보면 총자산순이익률이 일정할 때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자기자본의 비율이 낮을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삼아 자기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00의 자기자본으로 공장을 세워 10의 순이익을 얻었다면 자기자본순이익률은 10%이다. 그런데 만약 이 공장을 자기자본 50과 타인의 자본 50으로 세웠다면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0%가 된다. 타인의 자본을 끌어올 경우 지불해야 할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이익이 줄어 들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이 보장된다면 타인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높아진다. 그렇지만 타인자본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자비용이 커지게 되며 손실이 생길 때의 위험 또한 크다. 특히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기업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문 속 배경지식

2024 사문36	이익률	☆☆☆
<p>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투자를 위한 판단을 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은 '이익률'이다. 이익률은 기업이 얻은 이익을 분자로 놓고 그것을 기준치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이익은 정의방법에 따라 다양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익률도 달라진다.</p> <p>기업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익은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은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말한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일반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높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영업이익률을 많이 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크면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금융비용이나 투자손익, 외환거래에서의 환차손익 등과 같은 요소는 빠져있다. 영업이익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한 이익을 '경상이익'이라고 한다. 일례로 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흑자라 하더라도 경상이익은 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기업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우발적 원인에 의해 생기는 특별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경상이익에 특별손익을 더한 후 세금을 빼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인 '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 순이익률은 일정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p>		
<p>이익률 = 기업의 이익 / 기준치 정의 방법에 따라 기준치는 변함</p> <p>영업이익 = 매출액 - 원가를 포함한 비용</p> <p>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p> <p>경상이익 = 영업이익 - 금융비용, 투자손익 등</p> <p>순이익 = 경상이익 + 특별손익 - 세금</p>		

Comment

모든 식을 외우기보다는 이익률과 이익에 다양한 정의가 있고, 상황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를 모두 외우는 것은 어차피 제시될 것입니다. 이익률이나 이자율 등에 대한 개념은 교육과정상에 있기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 수능완성 본문에도 '등'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그 정의를 변하게(모호한 부분을 명확한 정의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토픽문단 이후의 내용인 순이익률 등 추가적으로 제시된 개념에 대해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어보는 것까지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익률에 대한 개념은 이미 평가원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수차례 기출로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꼭 읽어보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개념만 시간을 투자해서 이해해두고 강조해두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Comment (정부 발표 관련)

쉽게 출제된다는 전제하에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교육과정에도 있기도 하고,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으나, 반대로 그래프를 제외해도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출제된다면 (기출을 기준으로 공부한 학생을 기준으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지만, 보다 빠른 속도로 해결해서 문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지문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수완 p. 25

기출 속 배경지식

이익과 기업의 목적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해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2002. 수능

할인율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불가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008. 수능

사회적 할인율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 수능